



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



김 초 강
이화여대 보건교육과 교수

내 어렸을 적 기억의 한 자락을 깔고 있는 부끄러운 추억의 하나는, “나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으면...”이었다. 철없던 어린이로, 아파서 눕다 못해 병원에 입원만 할 수 있으면 평소 먹고 싶었던 귀한 음식과 갖고 싶었던 물욕 등의 욕구 충족 같은 것은 자제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어렵게 부모님께 부탁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. 그 소원은 부당했었으며, 한번도 소원풀이를 못해도 좋았던 과거에 감사한다.

속담에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,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,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라고 하니, 작은 소망, 큰 기쁨을 위해 1년 내내 언제나처럼 건강해야겠다.

돼지처럼 양면성인 동물도 그리 많지 않

을 것 같다. 밤과 낮이 다르듯이 꿈과 현실이 다르다. 어쩌다 손재수가 붙든지 복권 한장만 맞아도 “어?! 나 어젯밤에 돼지꿈 꾸었나?”이다. 꿈속의 돼지는 재물과 행운을 주며 출산 예정의 부인들에게나 그 가족에게는 아들을 잉태했다는 태몽이요, 길몽으로 해몽된다.

그러나 우리의 주변에서는 생각이 짧고 말 가벼운 사람들이, 상대에게 얼마나 골 깊은 상처가 되며 가슴에 박는 못이 되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책임없이 사람을 돼지처럼 생겼다,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, 돼지코, 돼지목, 돼지 목따는 소리 등 죄없는 돼지에 곤잘 비유하며 돼지와 사람을 함께 매도한다. 고사나 관혼 상제시 필수품으로 쓰면서도 말이다.

밝아 온 새해에는 상호 인격을 모독하거

나 상대를 예우해줄 줄 모르는 물염치보다,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서로에게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언행부터 고쳐나가는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.

생명의 존엄성을 꽃잎 하나, 풀 한 포기에서도 느끼며 이 순간 살아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고, 도도하고도 고요히 흐르는 물살처럼 수없이 변모하는 인생을 설계하여 촌각을 아끼며 시간을 소중히 쓸 줄 아는 철저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.

정체된 삶보다는 몸이 다소 고달프고 힘겹더라도 더 큰 정신적 보상에 만족하며 씨뿌린 만큼은 거두고 노력한 만큼은 지불받는 댓가가 있어서, 나만 헛 사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도태되는 비굴함보다는 계층간, 이웃간에 위화감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외롭지 않게 어울려 사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.

자신에게 솔직하고 남에게는 진실되며 손익을 따지기에 앞서 나로 인해 나 아닌 남이 조금은 덜 힘들고 조금은 덜 외로우며 조금의 위로나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다소는 밀지는듯 봉사하며 사는 실천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.

평생 자식을 위한 농사에 손금을 몽그러 뜨리며 봉사한 부모가 그 자식에게 매맞고 버림받으며 죽음으로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 버리는 비정한 이웃 소식은 아무리 초고속 정보사회라고 하더라도 제일 늦게 듣거나 아예 안들었으면 좋겠다.

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어린이가 나면서 그 부모에게 버림받고 다 크기

도 전에 굶어 죽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전염병으로 세상과 의학발전과는 무관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주었으면 좋겠다.

손해보는 것 같은 피해의식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금 믿고 살 수 있는 신의사회가 좀더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.

외손녀 지원이의 할머니로서의 삶을 살며, 혹여 설 자리 앓을 자리 구분 못하는 민망함이나 주제파악 못해 낄 자리 피할 자리도 정리못하지 않는 한해이기 바라고 그 누구에게든 내가 섰던 자리를 서운해 하며 가끔은 그리워 해주는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.

광복 50년의 반세기 발전이 사람들을 퇴색되게 하기보다 정신건강을 위해 재무장의 기회가 되기 바라며 시장은 시민 손으로, 구청장은 구민 손으로, 도지사는 도민 손으로 각자의 민주 주권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치루기를, 부정이니 부패니 하는 음성적 단어보다 맑은 물속 흰회 보듯이 개운한 마음으로 후회없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.

저마다 태어 난 고향에서 토속 문화를 사랑하는 긍지심으로 지자체 성공하여 좀더 좁은 분단국가 어디에 살든 고향같은 푸근한 마음으로 똑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계층간의 위화감없이 선의의 경쟁 속에 내 고향 내 풍토를 사랑하는 지역주민으로 저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. 22